

- 녹취록 -

프랑스 좌파당(PG)

발표 : 크리스토프 병쥬하(Christophe Ventura) 프랑스좌파당 국제위원회 위원장

토론 :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사회 : 황혜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황혜로 : 오늘 하루동안 프랑스의 대표적인 3개 좌파정당에 대한 쟁점과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첫 시간으로 프랑스좌파당의 시간이다. 크리스토프 병쥬하는 지난해 포럼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올해 포럼도 함께 준비했다. 2009파리포럼의 여러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해준 병쥬하를 박수로 맞이해주길 바란다.

병쥬하 : 프랑스좌파당 국제위원회의 크리스토프 병쥬하다. 이렇게 초대해 주어서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작년 파리포럼에서 남미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뜻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3개 부분의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첫번째는 올해 새롭게 창당한 프랑스좌파당의 창당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두번째는 지난 6월7일에 있었던 유럽의회선거결과, 선거전략 등에 대한 부분이다. 세번째는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당의 국제관계정책에 대한 것이다.

사회당에서 탈당한 장뤽 멜랑송이 새로운 좌파당 창당

프랑스좌파당은 올해 2009년 2월에 창당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다. 창당배경에 대해 말하면 현재 프랑스 좌파당의 대표인 장뤽 멜랑송은 작년 사회당 당대회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장뤽 멜랑송은 사회당이 순수한 정치노선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 판단을 기초로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그 당이 바로 프랑스좌파당이다.

두번째로 장뤽 멜랑송이 프랑스에 있는 모든 좌파진영에 일종의 선언을 하면서 창당했다. 그 선언은 원래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프랑스의 사회정치신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반신자유주의선언이었다. 그래서 프랑스좌파당은 프랑스 좌파정치 신념의 다양성과 전통좌파신념의 조화를 이루는 신념을 선언해 프랑스 좌파진영과 좌파적 시민들의 찬사를 얻으면서 창당했다.

우리는 프랑스가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번째 문제는 프랑스에 집권한 보수 우파 사흐코지정권이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당은 사흐코지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대통령중심으로 권력이 너무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염려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프랑스사회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지방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당이 본래 좌파정치의 순수한 정치이념을 잃어버리고 신자유주의로 전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당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다.

역사가 깊은 좌파당인 사회당이 순수성과 정통성을 잃고, 다른 좌파정당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분열과 당파싸움에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세번째로 큰 문제다. 그러나 좌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고 좌파정당들의 정치적 흔들림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지는 굳건히 살아있다는 것이 2004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으로 증명됐다.

그리고 유럽헌법찬반투표에서 좌파진영이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좌파가 힘을 합쳐 유럽헌법 반대운동에 승리하면서 유럽헌법조약이 도입되는 것을 막은 일은 좌파가 힘을 합칠 때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좌파가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좌파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정책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좌파정치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봤다. 그래서 우리는 좌파당을 창당하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좌파정당들의 통합”

좌파당을 만들면서 모든 좌파진영에 있는 당들에게 선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좌파정당이 단결해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념을 걸고 프랑스좌파당을 창당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선거에서 보여준 좋은 결과가 우리 정치노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겨냥하는 정치노선을 우리 좌파당에서 발표했다.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당이 제시했던 좌파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산당과 녹색당 등 여러 좌파정당들이 힘을 합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반자본주의신당이 좌파정당들의 연합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독립적인 노선을 택한 것이다.

우리 당으로써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독립노선을 주장한 녹색당 나름으로는 선거결과가 좋았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것이다.

좌파전선은 언론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7%의 지지를 얻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좌파가 통합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선거경험의 가장 중요한 평가다. 이것은 진정한 좌파통합을 보여준 증거였다.

오는 12월 당대회에서 좌파당 정치노선 발표

우리 좌파당에는 전국적으로 5000~6000명의 당원과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있다. 오는 2009년 12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참석하기를 바란다. 거기서 우리 당은 앞으로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또 당대회에서 NPA측에 전에는 통합에 실패했지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시 함께하자고 제안하면서 좌파전선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번에 좌파전선과 반자본주의신당에 제안하는 내용들은 좌파정치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좌파전선을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제안이자 3년후 있을 대선에서 지난번 패배를 반복하지 않고 좌파가 승리할 수 있는 제안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의 초석이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좌파진영이 진정으로 단결하고, 손상돼 가는 정통좌파노선을 보호하고 복원하여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우리당은 바라고 있다.

국제적 반신자유주의운동

프랑스좌파당의 근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이념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념이다. 프랑스좌파당은 국내정치노선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국제관계의 정치노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 당은 민주사회(Social Democratic)정치의 순수성과 정통성이 많이 손상되고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0년전부터 전세계에서 새로운 민주사회당 등이 국가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많이 등장했는데 그 나라들과 손잡고 정통성을 새롭게 복구해 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0년 전부터 새로운 정권이 많이 들어섰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 새로 등장한 정권들은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 정권이다. 우리 프랑스좌파당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 정권들에게 프랑스 좌파의 정치노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라틴아메리카보다는 변화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유럽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에서도 반신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반신자유주의운동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 그 목적은 하나인데 새로운 좌파노선과 손을 잡아서 국제적인 새로운 좌파노선을 만들고 국제적 협력하에 반신자유주의운동을 펼쳐나가자는 것이다.

오늘 이 발표 전 차를 마시면서 황혜로연구위원에게도 프랑스좌파당의 대표들과 한국에서 온 민주노동당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프랑스좌파당은 국제관계와 국제컨퍼런스를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간주한다. 국제공간에서 서로 정치이념이 통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을 중시한다. 국제적으로 반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좌파정치노선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려고 한다. 이 자리가 끝나고 앞으로 남은 워마니페스트기간동안 한국에서 온 민주노동당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좌파노선에 대해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다.

정치노선을 통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통역해주어서 감사하다. 될 수 있는 대로 프랑스좌파당의 노선의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한국분들이고, 통역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용어와 문장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황혜로 : 시간상 지정토론 20분, 그 뒤에 20분간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하겠다. 이상훈 서울시당부위원장이 먼저 지정토론을 하겠다.

이상훈 : 몇가지 간단히 질문하겠다. 사회당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탈당해 전체 좌파진영, 좌파당들의 단결과 통합을 지향하는 프랑스좌파당을 창당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에 반자본주의신당이나 공산당 등 다른 좌파정당에 얼마나 긍정하는지, 그들의 반응과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또 통합노선의 수위가 당대당 통합인지 아니면 공동전선인지 알고 싶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사회당에 해당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는데 통합의 수위와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

병츄하 : 2005년 유럽헌법찬반투표에서 커다란 성과를 얻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여러 좌파그룹과 공식적인 정당에도 좌파통합을 제시했다. 프랑스좌파당이 주장하는 좌파통합은 정당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좌파단체들 등 모든 좌파를 통합하는 그런 좌파통합이었다. 물론 반대하는 당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단체도 있었다. 대표적인 당은 반자본주의신당과 공산당이었고 그 외에 시민공화국운동, 좌파급진당 등 여러 단체에 이 제안을 했다.

정당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통합은 프랑스좌파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고 가장 희망하는 일이다. 새로운 당을 창당, 기존정당에서 탈당해서 올수도 있고 기존의 당자체가 올수도 있다. 새로운 정당을 제시하고 각 정당들을 합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가지를 갈라서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일단 먼저 좌파전선을 만들어서 이 당들이 자기 고유의 이름과 고유의 당사를 가지고 전선에 참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물

론 이 전선의 목적은 각 정당이 함께 하나의 정치노선을 걸고 우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좌파전선을 주장했는데 공산당은 따라왔고, 다른 정당들도 함께 했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신당에서는 전략이 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하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반자본주의신당에서 내건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다. 좌파당에서는 좌파를, 우파를 상대로 하는 하나의 힘으로 보는데 반자본주의신당에서는 현재의 우파정권 뿐 아니라 사회당도 적으로 본다. 좌파당은 사회당의 노선과 달라 떨어져 나왔어도 사회당을 적으로 보지 않는데 반자본주의신당은 그렇지 않은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신당도 좌파정당이기에 때문에 프랑스좌파당에서는 반자본주의신당과 정치노선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유럽의회선거에 임했다. 결과적으로 반자본주의신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증명했다.

이번 선거의 실패를 계기로 반자본주의신당에서는 내부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창조적인 이념을 만들자는 주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좌파당에서는 유럽의회선거에서는 서로 손잡는 데 실패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반자본주의신당에 손을 내밀 계획이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 좌파당은 공산당과 반자본주의신당 등 안타깝게도 분산되어 있는 다른 많은 좌파정당들에게 그 근본이념을 중시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각 정당의 고유한 이념과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정당들의 근본이념은 우파가 정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거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파가 정권을 잡는 것은 국민들에게 좌파들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파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우파집권을 저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긴 싸움을 해나가자고 여러 좌파진영의 정당과 일반시민들에게 주장하고 있다.

황혜로 : 김장민상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겠다.

김장민 : 내 질문은 유럽통합에 대한 좌파당의 입장이다. 프랑스의 좌파들은 유럽헌법과 리스본협약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헌법과 리스본협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2~3개 말해 달라. 또 프랑스좌파당은 유럽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럽통합의 모델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자본의 자유를 더욱 강화하는 유럽연합헌법, 리스본조약 전적으로 반대”

병쑤하 : 프랑스좌파당에서는 리스본조약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이유는 법이나 규정, 리스본조약의 이념 자체가 걸포장만 씌웠을 뿐 이전 리스본조약과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1986년 이후 조약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

리스본조약은 25개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의 힘을 오히려 저해한다. 이 리스본조약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집권한 정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이 서로 정치적 힘을 합치자는 것이지 사회보장시스템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도 유럽통합은 전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25개 국가의 자본주의시스템에 전적인 자유를 주어서 자본주의권력을 더 강화하자는 데 있다.

리스본조약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유럽통합은 근본적으로 서민을 위한 사회보장문제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대기업들에게 자유를 더 많이 주어서 그 재정적 힘과 경쟁력을 키워 미국의 대기업들과 겨누어 더 큰 힘을 키우겠다는 근본목적이 깔려있다.

세계시장은 경쟁 즉, 경제발전이 필요한데 공공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자본주의자들의 경제력을 막고 있다고 리스본조약을 찬성하는 이들은 주장한다. 간단히 말하면 전세계의 사회보장정책을 억누르고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리스본조약이다. 경제전쟁은 신국수주의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리스본조약에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럽통합, 특히 리스본조약에 의한 유럽통합을 무조건 반대한다. 유럽통합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유형의 유럽통합을 주장하고 싶다.

황혜로 : 질문 하나만 더 받겠다.

“반자본주의신당, 내년 지방선거 좌파전선참여 호의적”

조덕원 : 반자본주의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합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다. 반자본주의신당은 사회당도 적으로 보고 사회당과 지방선거에서 손잡았던 공산당에도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반자본주의신당이 좌파전선에 들어올 가능성은 어떠한가 공산당도 좌파전선에 들어올 텐데 그 부분을 반자본주의신당이 어떻게 여길지 궁금하다.

방쥬하 : 알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다. 유럽의회선거에서 반자본주의신당이 실패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게 하는 점이라고 본다. 지금 반자본주의신당의 책임자들이 통합하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난 실패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반자본주의신당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반자본주의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좌파전선을 만드는 것에 호의적이다. 지방선거가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투표에서 통합을 해서 뚫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1차투표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우파가 투표율이 더 앞섰을 때 개별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를 무조건 반대하는 전선으로 전환하자고 우리당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반자본주의신당은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선거에서 자기당 후보를 지지하자고 했고 일단 좌파가 1차선거에 실패한 후에는 우파후보낙선을 목표로 했고 좌파당은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신당에서는 그것을 반대해 중립노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좌파당에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파가 승리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면 무너뜨려야 한다. 그 경우 사회당과도 힘을 합쳐서 당을 떠나 무조건 우파를 무너뜨리는 노선을 걸어야 한다.

“현직시장이 있는 공산당, 선거연합에 찬반 갈려”

공산당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공산당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 찬반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사실 공산당은 반자본주의신당이나 좌파당과는 달리 지방의 현직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진 독립적인 정치노선이 있다. 솔직히 말해 좌파당은 지방의원이 1명도 없다. 반자본주의신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산당은 현직의원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리고 공산당보다 더 의원이 많은 사회당이 공산당을 유혹하면서 좌파전선을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은 좌파전선은 힘이 약하니까 자신들과 함께하자고 한다. 녹색당도 좌파전선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파의 제안도 있지 않겠는가. 공산당을 설득시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공산당이 좌파당과는 다른 당이지만 우파와 손잡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공산당 소속 시장들이 많다. 지방에 많은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서는 함부로 정치노선을 바꿀 수 없다. 전국에 있는 시장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노선에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조덕원 : 좌파당이 공산당이나 반자본주의신당과 한마디로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다.

“우파가 정권을 못 잡게 만드는 것이 좌파당의 근본노선”

병췌하 : 좌파당은 다른 정당과 일단 전략이 다르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당이 다르다. 특히 반자본주의신당은 좌파진영에서 무조건적인 반항아, 저항아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파에 반대하는 좌익정치이념은 같은데 극단적인 좌익노선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다른 좌파 정당들과 다른 점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 솔직해지는 것이다. 우파가 정권을 못 잡게 하고, 우파정권이 더 힘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좌파당의 근본노선이다.

황혜로 : 수고한 병췌하에게 박수 부탁드린다. 오늘 병췌하는 좌파당입장에서 발표했는데 내일 오후4시부터는 인터내셔널과 중남미변혁에 관해 발제한다. 관심 있게 참여해 달라. 다들 수고했다. <끝>